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04호 / 1월 28일

중국 노령화사회의 도전과 과제

1. 개요

- 중국은 향후 20년 내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0%에서 15.6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, 노령화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·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.
- 일반적으로 노령화사회는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10%,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%를 넘는 경우를 의미함.
- 중국의 노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억 3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%에 달하고 있는바, 선진국이 100년에 걸쳐 도달한 수준을 중국은 40년 만에 도달한 것임.
- 금후로도 중국의 노령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년 내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3000만 명으로 증가하고, 전체인구에서의 비율도 15.6%로 증가할 전망이다.
- 이에 따라 중국이 표방하는 小康社會 실현 과정에서 노령화 문제가 적지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.

- 중국사회과학원 老年科學研究會 시웅배쥔(熊必俊) 회장은 사회보장체계 완비와 노인복지기관 설립, 실버산업 육성 등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.

2. 노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

□ 첫째, 중국은 2010년부터 노동연령 인구의 비율이 하락하면서 노동자원의 감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.

-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자원의 비율은 2010년-2020년 기간동안 67.9%에서 64.5%로 감소될 전망이다.
- o 특히 상해는 이미 1993년에 청년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고, 2010년에는 북경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임.
- 2020년 이후에는 도시노동력 부족을 농촌지역 청년노동력을 유입시켜 대체하는 방안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임.

□ 둘째, 노동인구의 노령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.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노동인구 중에서도 15세-29세의 저연령 노동인구와 30세-44세 중년 노동인구 비율은 줄어들고, 45세-59세의 장년 노동인구 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.
- o 저연령 노동인구의 비율은 2000년, 2010년, 2020년 각각 전체인구에서의 비율이 38%, 36%, 34%로 하락함.
- o 중년 노동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38%, 36%, 34%로 하락함.
- o 반면 장년 노동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24%, 28%, 35%로 상승함.

□ 셋째, 양로부담의 증가는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,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의 확대 재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.

- 중국의 국가노동·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중국의 양로부담 비율은 2000년 15.4%에서 2010년과 2020년 각각 17.4%와 24.7%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.
 - o 양로부담 증가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사회경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함.
 - 또한 2001년 중앙재정에서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보조액이 349억 원이었는데, 2005년에는 양로보험기금의 적자액이 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.
 - o 양로보험과 의료비 지출 등 전체 양로금액은 2000년 2,099억 원에서 2020년 2조8,145억 원으로 1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o 나아가 향후 실제 퇴직년령이 사실상 2년-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로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.
- ☐ 넷째, 노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여 자본축적이 어려워질 경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3. 인구 노령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

- ☐ 중국정부는 최근에야 노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, 2000년과 2001년 양로보장체계와 노인복지기관 설립, 실버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<노령사업강화에 대한 결정>, <노령사업발전 5개년 계획> 등을 발표하였음.
- ☐ 향후 중국정부는 첫째, 2001년-2015년 기간중 양로부담이 낮은 “황금시기”를 최대한 이용하여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.
- 2000년-2020년 기간 노동연령비율의 감소폭이 0.6% 포인트 이하로 안정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, 2005년 이후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비해 인구의 연령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.
- ☐ 둘째,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여 노령화 문제에 대비할 계획임.

- 현재 중국의 노인인구 중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도시에서는 72.2%에 달하지만 농촌에서는 5.5%에 불과함.

- 500만 명에 달하는 노인인구가 소속 지역의 경제적 낙후나 퇴직연금 부족, 사회보장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러한 현상은 금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.

- o 기초 양로 및 의료보장 제도의 건립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마련이 시급함.

□ 셋째, 부분적으로 퇴직연령을 높음으로써 양로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음.

- 법정 퇴직연령 기준으로 산정할 때 중국의 양로보험기금은 2001년 1261억 원 적자에서 2020년 1조7176억 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.

- 만일 퇴직연령을 1년 정도 늦출 경우 양로기금 수입은 매년 40억 원 증가하고 지출은 160억 원 감소하여, 기금 적자가 200억 원 줄어들게 됨.

- o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직공이 60세, 여성직공이 55세, 여성임시공이 50세인데, 2010년 이후 여성직공과 남성직공의 퇴직연령을 일괄적으로 60세로 조정할 경우 2020년에는 양로기금이 흑자로 반전될 수 있음.

□ 넷째, 노인인구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.

- 한편,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막대한 잠재수요를 보유한 실버산업의 육성도 병행할 것임.(***)